

# 언론에서 바라본

# 구로 벤처 전성시대



어느 사이 구로와 벤처라는 단어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구로와 가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기존 벤처들의 메카로 여겨지던 강남 테헤란밸리보다 더욱 든든한 벤처의 홈 그라운드가 된 것이지요. 수많은 언론이 이를 알려왔습니다.

## 벤처, 남부순환로에 길을 묻다

### 2001~2007 계획 추적

테헤란로를 떠난 벤처기업들의 이합집산이 마무리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새로 동지를 찾는 곳은 주로 어디일까? 14일 중소기업청의 '2007년 벤처기업 발달'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벤처기업의 등고선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강남-서초구와 구로-금천구다. 지난 2001년 말 각각 1768사와 909사였던 강남구와 서초구의 벤처기업 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89사와 486사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구로구의 벤처기업 수는 148사에서 478사로, 금천구의 경우 140사에서 427사로 수직상승했다. 서울에서 지난 6년 새 벤처기업 수가 늘어난 지역은 이들 2개구뿐이다. 또 성남시의 벤처기업 수가 540사에 이르러, 분당 인근지역이 새 벤처타운을 이룰음을 방증했다.

벤처 입지의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구로디지털단지(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다. 이미 벤처기업이 670곳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중순에는 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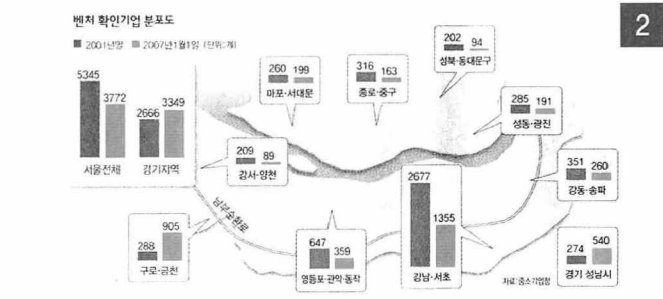
처기업협의회까지 강남에서 이전해 왔다. 벤처들의 활발한 입주에 힘입어 한때 붐볐던 유·화학업종 등의 몰락으로 제조업 공동체의 대표사제로 꼽혔던 60만평 구로공단에는 모두 5770개 기업들로 북적대고 있다.

도 본사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우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은 "벤처기업이 개진 2002년에 구조조정기를 맞은 기업이 많이 옮겨 왔으며, 최근에는 사업확장에 따라 넓은 공간을 찾은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견 벤처들 테헤란로 떠나 분당·판교로 새내기들은 공단 가까운 구로·금천 집결

스벤처센터와 외환은행 네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로디지털단지 1단지(14만평 규모)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산업지구로 발바꿈했다. 인기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관련 업체를 고개으로 둔 소프트웨어 벤처들이 대다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게임 업체 등도 잇따라 입주하고 있다. 테헤란밸리의 스타타워를 떠나온 세제이인터넷을 비롯해, 위메이드, 컴투스 등이 구로에 터를 잡고 있으며, 게임빌과 영조이넷

역과 '수출의 다리' 주변 34만평에 이르는 3단지에도 대기 물려있다. 일반적인 정보기술 업체들은 물론 제조업 벤처들까지 많이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인천 남동공단 등 전통 제조업체들이 몰려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생산거점이나 주요 협력사들을 두고 있다. 피사용 클러를 만드는 정만테크의 남영우 상무는 "서부간선도로를 타면 시차 안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울권에서 대졸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기도 용이하다"며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는 구로에 두고 생산기지가 열려업체는 인근 공단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구로가 창업 초기의 벤처, 그리고 제조 벤처들에게 보급지리로 떠올랐다면, 분당·판교지역은 이미 대기업이 됐거나 그 문턱을 넘고 있는 중견벤처들의 거점이 됐다. 분당 정자동의 간스타워와 에스케이씨엔씨, 연예이치엔 등이 입주해 있는 에스케이 유-타워가 이 지역 벤처의 구상점이다. 휴맥스와 다산네트웍스, 모빌링크

텔레콤, 다날 등이 모인 수내동의 휴맥스 빌리지도 유명하다. 분당권에는 케이티 등 대기업들의 본사나 연구시설이 줄거우면서 여러 협력사들이 동반이전했다. 테헤란밸리-양재 포이-성남 분당을 잇는 벤처산업 벨트는 다시 판교로 이어진다. 2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연예이치엔, 태오위스, 넥스, 인터파크 등의 기업들이 구성된 38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10년 말에 입주할 예정이다. 다산

네트웍스의 남민우 대표는 "테헤란밸리는 벤처의 분화흐름으로 봐야 한다"며 "강남의 이점을 누리려는 중견벤처들은 판교에서 '재생'되고, 2000년 이후 창업한 벤처들은 구로에서 '신생'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의 출신기 박사는 "작은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살 수 있다"며 "구로든 판교든 그런 구상점을 마련해주는 게 정부나 지자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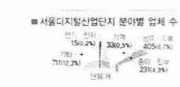
- 1 : 2007년 2월 12일자 MBC뉴스데스크 방영분  
'구로공단, 디지털단지 변신' - 과거 제조업으로 수출의 첨병역할을 했던 구로공단이 이제는 디지털단지로 변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한 모습을 취재한 기사
- 2 : 2007년 2월 15일자 한겨레신문 19면  
'벤처, 남부순환로에 길을 묻다' - 테헤란밸리를 떠난 벤처를 구로금천과 분당판교로 나누어 벤처 이동의 흐름을 읽어낸 기사
- 3-6 : 2007년 2월 6일자 전자신문 1면, 14~15면  
'디지털 구로, 벤처지형 바꾸다' - 과거 구로 공단에서 벤처기업의 집적 단지로 거듭나며 지식산업의 신 메카로 거듭나는 구로를 조명하 기획기사



▶권역기차 14-15면 <1부> 디지털구로, 벤처지형 바꾸다 3

## 24시간 불 밝힌 '지식산업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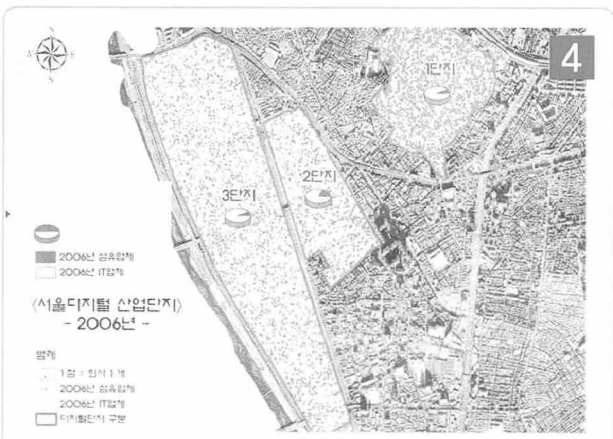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현대식 사무실”이 일련의 벤처기업들이 “IT”를 키워 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공간 변화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 50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베풀어진 팽창보다 질적 성장세 '뚜렷'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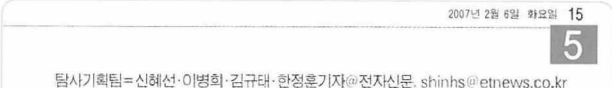
3차에 걸쳐 24시간 불이 켜져 들어왔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00여개 기업이 24시간 불을 켜고 있다. (GIS 그래픽 제공: 엔트뉴스)

## 우량 IT벤처 집산 단지로 변모

### 입주 풍속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주 풍속도는 2006년 12월 기준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7년 2월 6일 화요일 15 5

## CEO 66.7% “입주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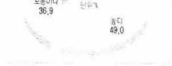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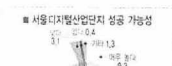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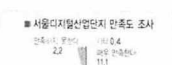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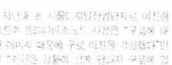
### 225명 설문조사 결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CEO 66.7%가 “입주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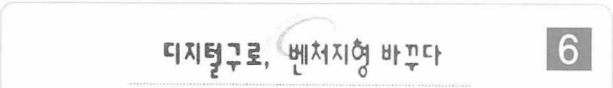
### 저렴한 임차료·대의 인지도 변화 한몫

### 종종 업체간 시너지효과 기대감 높아

이러한 추세는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7년 2월 6일 화요일 15 6

## ‘IT 아리랑’ 노래 부를 희망의 땅

### 4500여 IT업체 입주

### ‘첨단벤처 1번지’ 도약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주 풍속도는 2006년 12월 기준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종종 업체간 시너지효과 기대감 높아

이러한 추세는 2006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기업 2,000여 개가 24시간 불을 밝힌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2005년 1,300여 개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